

경복궁 근정전 월대 석난간에 설치된  
서수 조각물의 내용 및 상징적 의미 연구  
-28수 관련 내용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Symbolism of Auspicious Animal Sculptures Installed on  
Woldae(月臺) Stone Railing at the Geunjeongjeon(勤政殿)  
of Gyeongbokgung(景福宮)  
- Based on Twenty-eight Mansions -

이 호 선

Lee, Ho-Sun

(한양대학교 건축학과 박사과정)

한 동 수\*

Han, Dong-Soo

(한양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 Abstract

There are stone sculptures diversely shaped in several parts of Gyeongbokgung. Geunjeongjeon is a place where the stone sculptures are intensively placed among the various palace buildings of Gyeongbokgung, and it is more important because it contains the phases of the age of the dynasty and the symbolism of governing philosophy. What can be seen in the structure of auspicious animal sculptures is based on the form of instinctive thought that the heavenly and human order systems are in an organic correspondence with each other, especially with regard to astronomical events such as Samwon Sasin 12jisin 28su. The parts that have been interpreted only in Sasin and 12jisin in the interpretations such as wild dogs, Gyoryong, camels, wolves, and apes were able to clarify the contents by revealing the form of 28su. In particular, as Beopsu Ssangbeopsu at the corner may be related to the guardian deity who governs water, called Yimun, Chimi, and Chimun, it is one of Bibo's ways to protect the palace that was vulnerable to fire. In addition, the shape of the existing 28su placed Dambi, but Ha Woldae at the Geunjeongjeon was assumed to have a camel statue and a planned arrangement of double meaning with the Bibo form of Pungsu Sasinsa, and it is also a feature of the arrangement of Woldae at the Geunjeongjeon. The actual composition of auspicious animals at the Nambogye of Geunjeongjeon was in the order of Haechi, wild dogs, horses and Jujak, and the contents of "Gyeongbokgung Construction Daily Record" were in the order of Haechi, horses, wild dogs, and Jujak. As to different composition layouts, based on the contents of the "Gyeongbok palace Construction Daily Record", the composition of Samjae Cheonjiin (天地人) was interpreted differently from the conventional interpretation of the arrangement of Woldae. All of these forms are associated with defense systems in the four directions and have become animal representations of each direction. The auspicious animal statues placed on the railing of Geunjeongjeon Woldae can be seen as reflected in a single building with the three dimensional personality that includes Pungsu's Bibo personality with the symbolic meaning that reveals the centrality as Jeong Jeon, the nation's best politics let alone the ideological system of the ancient astronomical of the East called Men Heaven Unity.

주제어 : 경복궁, 근정전, 월대, 서수, 28수, 풍수

Keywords : Gyeongbokgung, Geunjeongjeon, Woldae, Auspicious animal, Twenty-eight mansions, Pungsu

## 1. 서 론

### 1-1. 연구배경과 목적

경복궁은 조선 최고의 권위를 나타내는 법궁으로서

\* Corresponding Author : dsharn@hanyang.ac.kr

본 논문은 2019년 8월 24일 한양대 건축학부 동아시아건축역사연구실에서 주관한 2019년 한양대 풍수대토론회에서 발표한 내용을 기반으로 수정, 보완한 것임

건물의 배치는 물론 건축물의 안팎을 장식하는 다양한 조형물의 형태와 색채, 그리고 그것이 놓인 위치에 이르기까지 상징적 의미가 부여되지 않은 것이 없다. 특히 근정전은 경복궁의 여러 전각 가운데 외부공간에 석조 조형물이 집중적으로 설치된 곳으로 주로 왕조의 시대상과 통치이념의 상징성을 내포하고 있어 더욱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 그동안 학계에서는 대부분 사신(四神)과 12지신(十二支神)의 개념을 이용하여 그 형상을 해석해 왔으나 학자들 사이에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원인은 조형물의 형상이 대부분 동물의 특징적 모습에 상상력을 더함으로써 사람들마다 조금씩 다르게 인식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행히 최근 와세다 대학 도서관에 소장된 『경복궁 영건일기』가 알려지면서 경복궁 월대 난간의 구체적 배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기록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되었고 그에 따른 연구 성과가 발표된 바 있다. 그러나 근정전 월대에 구성된 일부 조형물 형상에 대해서는 여전히 명확한 견해가 제시되고 있지 않아 면밀한 재검토가 요구된다.

근정전 월대에 조형된 석물은 기본적으로 사신과 12지신·28수(宿)가 적용되었다. 이들은 모두 사방(四方)의 수호신으로서 방위체계와 관련된 상징적 의미를 포함한다. 사신과 12지신의 경우는 그동안 우리 일상생활에도 보편적으로 알려져 있어 그 형상(形象)을 구분하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었다. 그러나 28수의 형상은 그 수가 많기도 하고 12지신에 해당하는 다른 음의 글자를 사용할 뿐만 아니라 상상 속의 동물을 포함하고 있어 정확한 형태를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따랐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기존의 연구 성과에서처럼 근정전 서수상의 해석에 있어서 28수의 동물형상으로 해석되어야 할 것이 12지신으로 잘못 해석되는 등 월대에 구성된 형상을 파악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따랐다. 특히 28수(宿)는 별자리로만 인식되어 구체적인 동물 형상으로 연결하려는 시도는 없었다.

따라서 본고는 『경복궁 영건일기』에서 제시하고 있는 월대의 구성과 현재 구성의 차이에 대한 해석과 함께 28수 형상의 구체적 형태를 밝히고, 28수의 활용적 특징과 그에 따른 상징적 의미를 파악해 보고자 한다.

## 1-2. 연구방법 및 선행연구 검토

경복궁 석조 조형물에 대한 기존의 연구는 미술·건축·동양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되어왔다. 국립문

화재연구소에서도 석조 조형물에 대한 기초 조사<sup>1)</sup>나 전통 문양<sup>2)</sup>에 대한 분석 등 꾸준히 연구가 진행되고 오고 있는 실정이다. 석물과 관련해서는 적지 않은 학자들에 의해 다양한 해석이 이루어졌다.

김원룡은 근정전 월대의 구성이 중국식 조각의 이조화(李祖化)한 것이라고 하였다. 사신과 십이지상, 해치 또는 이두(鸚頭)상으로 설명하고 하고 있다.<sup>3)</sup> 이강근은 자격루와 관련지어 설명하면서 해의 운행에 따른 사시의 순환을 고정된 위치에서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상징물로 보았다. 왕권의 권위와 신성성을 옹변하는 공간으로서 왕이 천명을 따르게 하려는 유가적 관인계층의 의식이 월대에 조영된 것으로 사신과 십이지만으로 해석하였다.<sup>4)</sup> 조은정은 사신과 12지신으로 설명하였는데 십이지 중에서 설치되지 않은 동물상에 대해서는 ‘불길한 동물은 아예 만들지 않았다’거나 ‘계단의 위치상 설치될 수 없는 곳’에는 동물이 생략되었는데 당시의 배치 방식에서 크게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고 해석하고 있다.<sup>5)</sup> 소재구는 월대의 기본적인 형상을 사신과 십이지상으로 해석하면서 일부 보이지 않는 형상들은 근정전 원래의 배치 상태가 아닌 재건시 변화된 것으로 추정하였다.<sup>6)</sup> 배만곤은 근정전에 구성된 모든 서수상의 숫자를 더해 구궁도의 원리로 설명하였다. 사신과 십이지상외 서수 또는 해치상으로 보았으며, 모서리 부분의 형상은 대부분 서수로, 남보게 하단의 월대 형상을 모두 해치로 해석하였다.<sup>7)</sup> 이성준은 경복궁의 조성원리인 역리와 음양오행의 원리를 이용하여 사신과 12지신으로 배치 원형을 추정하였다. 용, 개, 돼지의 부재 이유는 설명할 수 있지만 소, 호랑이, 뱀의 위치가 현재 배치와 다르다는 것을 설명할 수 없다고 하면서 비보염승의 원리로도 해석이 어려워 조선만의 독창성이라고 한계성을 드러내고 있다.<sup>8)</sup> 최준형은 석조조형물의 문양에 대한 조사 자료로서 조형물에서

1) 『경복궁 석조조형물 기초조사연구보고서』, 국립문화재연구소, 2011

2) 『우리나라 전통 무늬 궁능석조물』, 국립문화재연구소, 2014

3) 김원룡, 「李朝石獸彫刻」, 향토서울 제 12호, 1961

4) 이강근, 「조선 전반기 궁궐건축의 형식과 의미에 대한 연구」, 한국불교미술사학회, 36호, 2011

5) 조은정, 「19·20세기 宮廷 彫刻에 대한 小論」, 한국근대미술사학, 5호, 한국근대미술사학회, 1997

6) 소재구, 「月臺의 石造造形」, 『勤政殿實測調査報告 上』, 文化財廳, 2000

7) 배만곤, 「궁궐 석수조각의 상징성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문화예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8) 이성준, 「경복궁 근정전 월대 난간석주상 연구」, 한국미술사학회, 2011

나타나는 전통 문양의 상징적 의미를 정리하였다.<sup>9)</sup>

그러나 이러한 조형물 배치에 대한 해석은 『경복궁 영건일기』의 발견을 기준으로 전과 후를 구분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전에 이루어진 조형물 해석의 대부분은 사신과 12지신에 국한되어 해석하느라 여러 부분에서 오류가 발생될 수밖에 없었다. 주로 전면 2층의 서수상과 동·서쪽 협보계에 놓인 서수상의 해석에서 오류가 발생되었는데 그곳에는 12지신이 아닌 28수에 해당하는 서수상이 배치되었기 때문이다.

김민규는 『경복궁 영건일기』가 발견된 이후의 해석으로 그동안의 사신과 12지신만으로 해석되었던 오류를 바로 잡을 수 있었으며 28수가 적용된 서수상의 배치구조에 대한 내용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그의 연구에서도 여전히 안(豨), 낙(駱), 교(蛟), 랑(狼), 원(猿)과 같은 형상이 28수임을 밝히고는 있지만 그 도상이 어떤 동물인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어 전체 28수의 동물 형태를 규명하는 연구가 요구되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내용인 남보계에 놓인 서수의 해석에 있어서 사신과 십이지신은 상위, 28수는 하위 등 상하의 개념으로 해석하고 있다.<sup>10)</sup> 이에 본고는 십이지신이나 28수는 단순히 상하 개념으로 해석하기 보다는 보다 근원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28수형상의 성립배경 및 구체적인 형태를 밝히고, 형상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근정전에 설치된 서수의 내용을 위주로 전개하고자 한다.

## 2. 28수 형상의 성립 배경

동양의 고대 천문에서 가장 대표적인 별자리 형식을 말할 때는 일반적으로 삼원과 이십팔수 체계에서 찾는다. 삼원(三垣)의 원은 밤하늘의 별들 중에서 가장 밀집되어 있는 세 곳의 별무리 지역을 일컫는 말이다. 북극성 주변의 천궁을 자미원, 동북쪽 아래 추분점 주변의 무리를 태미원, 동남쪽 아래 별무리를 천시원이라고 한다. 사마천의 『사기』 「천관서」에 자궁, 태미, 천시라는 명칭을 사용했으며, 단원자의 『보천가(步天歌)』<sup>11)</sup>에서 상원(上元) 태미궁, 중원(中元) 자미궁, 하

원(下元) 천시궁이라 하여 상중하의 삼원궁으로 의미 부여를 하면서부터 지금까지 동양 별자리의 표준으로 널리 전승되어 왔다.<sup>12)</sup>

이십팔수는 하늘의 적도 둘레를 28등분한 천문체계이다. 이십팔수는 동서남북의 사방위별로 7개씩 나누어 동방칠수는 각항저방심미기(角亢氐房心尾箕), 북방칠수는 두우녀허위실벽(斗牛女虛危室壁), 서방칠수는 구루위묘필자삼(奎婁胃昂畢觜參), 남방칠수는 정귀류성장익진(井鬼柳星張翼軫)으로 나눈 것이다.

28수는 북두칠성과 결합하여 방위와 시간을 나타내는 지표로 작용하기도 하고, 청룡, 백호, 주작, 현무의 사신 형식과 결합해서 천상을 구획하는 기준 별자리 역할을 하기도 한다. 28수는 한꺼번에 보이는 것이 아니고 계절에 따라 조금씩 달리 보인다. 즉 한 봄(仲春)에는 동방청룡칠수가 동쪽에, 남방주작칠수가 남쪽에, 서방백호칠수가 서쪽에, 북방현무칠수가 북쪽에 있게 되지만, 한여름(仲夏)에는 서쪽으로 90도 회전하여 북방현무칠수가 동쪽에, 동방청룡칠수가 남쪽에, 남방주작칠수가 서쪽에, 서방백호칠수가 북쪽에 있게 된다. 한 가을(仲秋)에는 다시 서쪽으로 90도 회전하여 서방백호칠수가 동쪽에, 북방현무칠수가 남쪽에, 동방청룡칠수가 서쪽에, 남방주작칠수가 북쪽에 있게 되며, 한 겨울(仲冬)에는 서쪽으로 90도 회전하여 남방주작칠수가 동쪽에 있게 되며, 서방백호칠수가 남쪽에, 북방현무칠수가 서쪽에, 동방청룡칠수가 북쪽에 있게 된다.<sup>13)</sup>

이와 같은 이십팔수의 형태는 진한시기 이후로 정착되었을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여씨춘추』와 『회남자』 등의 저작 시기에는 현재의 28수와는 조금 다른 형태이기는 하나 어느 정도 완성을 이루었던 시기이다. 『회남자』 「천문훈」에서 처음으로 현무라는 새로운 북방의 신수를 도입시키면서 사신 형식의 기초가 되었다. 진한시대 무렵에 28수 체계가 거의 완성되었고, 사방위 신수 형식이 성립된 것은 사마천에 의해서이다. 『사기』 「천관서」에서는 하늘의 이십팔수 별자리를 청룡, 백호, 주작, 현무의 사방위에 신수를 결합시키는 방식이 처음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천상의 별자리와 연관된 사신형식은 이후 후한시대로 가면서 더욱 확산되는 것으로 보여 진다.<sup>14)</sup>

11) 보천가는 '별자리와 별자리의 사이를 걸어가듯이 길이를 재는 노래'라는 뜻으로 당나라의 칠언절구의 시이다.

12) 김일권, 『동양 천문사상 하늘의 역사』, 예문서원, 2012, 137쪽

13) 이순지, 김수길·윤상철 공역, 『천문류초』, 대유학당, 1998, 51쪽

14) 陳遵媯, 『二十八宿의演變』, 『中國天文學史』, 권2, 1985, 65쪽

9) 최준형, 「경복궁, 창덕궁, 점경물 문양에 관한 연구」, 한국전통조경학회지, 10권 1호, 2002

10) 김민규, 「경복궁영건일기와 경복궁의 여러 상징 연구」, 고궁문화, 11호, 2018

천문사상은 본격적으로 후한시기 서역에서 불교가 유입되면서부터 자리를 잡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물론 진한시대 이전에도 바빌론 천문학이나 인도 천문학과 의 교섭 문제가 거론되지만 이시기에 중앙아시아 안식국의 태자였던 안청이 중국으로 와서 『사두간경』을 번역하면서 처음으로 서역의 불교 천문관념을 소개하였다.<sup>15)</sup> 불교는 육조시대(222-588)를 거쳐 수당시대에 이르면 최 극성에 다다르게 되며 이와 함께 불교 천문관에 대한 번역서도 다량 출현한다. 특히 6-7세기경에 성립된 인도 밀교의 전파로 당대에는 북두칠성을 비롯한 이십팔수 같은 여러 가지 성수신앙이 절정에 이른다.<sup>16)</sup> 이 시기 수많은 갈래의 점성법이 등장하였고 별자리를 이용한 점성법은 당 중기 전후해서 크게 정립이 되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같은 시기 왕충의 『논형』 「물세」편에서는 십이지 동물 배속과 오행의 상생 상극의 합리적이지만 못한 내용을 논하는 과정<sup>17)</sup>을 볼 수 있는데, 이 과정에서 사신이나 십이지에 동물의 배속과 같은 내용들이 당시 사회에서는 이미 만연하였던 논리였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게 한다.

이렇게 사신과 12지신에 대한 사방위 신수 형식의 성립은 28수의 신수 형식에도 기반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28수에 신수가 본격적으로 나타난 것은 북송시기 이후로 보여 진다. 북송시기 저서인 『비아』<sup>18)</sup>와 『태평어람』<sup>19)</sup>과 같은 백과사전류의 총서에서 정리되어 나타나기 시작하여 송대 유운서의 『소문입식운기론오』, 당중우의 『제왕경세도보』 등 의서류에서도 활용되었다. 28수 형상의 이름은 28수별자리에 일월성신(七政)과 동물이 배속되고 이들을 결합시켜 만들었다. 일월성신의 시작은 목성에서 시작하여 수성으로 마무리(木

→金→土→日→月→火→水)가 되는데 목(木)은 만물의 시작과 성장을, 수(水)는 응축과 마무리를 의미하는 것으로 음양의 기본사상인 생장수장(生長收藏)의 자연법칙에 근거해 배속된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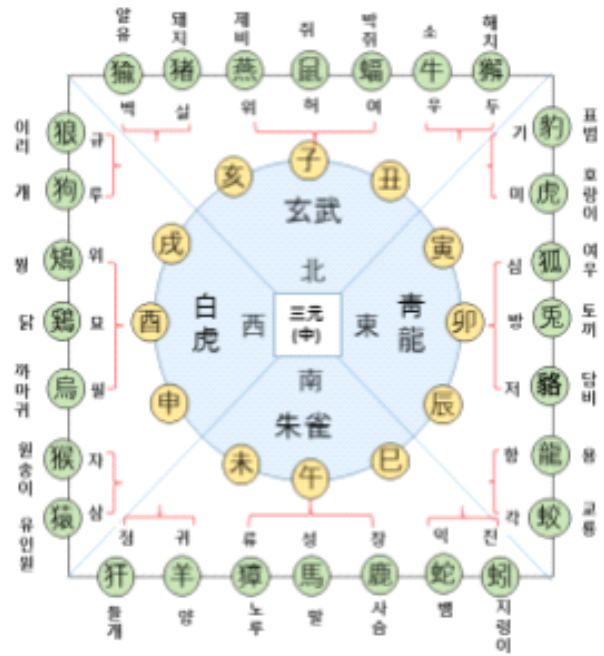


그림 1. 사신· 12지신· 28수형상의 배치

이렇게 만들어진 이름은 각목교, 향금룡, 저토학, 방일토, 심월호, 미화호, 기수표, 두목해, 우금우, 여토복, 허일서, 위월연, 실화저, 벽수유, 규목랑, 루금구, 위토치, 묘일계, 필월오, 자화후, 삼수원, 정목한, 귀금양, 류토장, 성일마, 장월록, 익화사, 진수인이다.

28수형상 용어들을 볼 수 있는 명대의 저서들은 『무편』<sup>20)</sup> 『패편』<sup>21)</sup>, 『성학대성』<sup>22)</sup> 『연금통찬』<sup>23)</sup> 『도서편』<sup>24)</sup>, 『소곡집』<sup>25)</sup>, 『금성이건』<sup>26)</sup> 『승암집』<sup>27)</sup>, 『진택집

15) 陳遵媯, 『二十八宿의演變』, 『中國天文學史』, 권2, 1985, 149쪽

16) 김일권, 『동양 천문사상 하늘의 역사』, 예문서원, 2012, 372쪽

17) 왕충, 성기욱 옮김, 『논형』, 동아일보사, 2012, 150쪽

18) 『비아』는 북송시기 육전에 의해 쓰여졌다. 『비아』의 내용을 증보한 것으로 총 20권으로 구성되었다. 문자의 구조·자형·자음에 대한 원론적인 의미를 수많은 고전의 내용을 인용하여 설명하고 있다. 주로 민속전설 및 생활경험, 고대의 흥미로운 수많은 이야기들을 수록하고 있다. 비록 현대의 기준으로 보면 비과학적인 성분이 섞여 있기는 하나 전체적으로 고전에 대한 문자의 성격이나 내용을 해석하는데 있어서는 중요한 의미가 있는 고서로 알려져 있다.

19) 『태평어람』은 송나라 태종(太宗)의 명으로 977년에 착수하여 983년에 완성시킨 1,000권에 달하는 방대한 책이다. 내용 체제는 55 부분으로 나뉘어 있고, 인용한 책이 1,690종이나 된다. 전대(前代)의 잡서로부터 대개 채록한 것이나, 많은 일서(逸書)의 이야기를 적어 놓아 중국의 재래 백과서 중 백미(白眉)이다. 이 책은 송대(宋代) 이전의 고사를 아는 데 유용할 뿐 아니라, 사이부(四夷部)에 신라와 고구려 등에 관한 기록이 보여 한국 역사 연구에도 도움이 되고 있다.

20) 『무편』은 명나라 병법서로 당순지에 의해 편찬되었다. 명나라 가정 중기 당시 명대의 군대는 사기가 떨어지고 군대의 기강이 약해지고 산만했다. 당순지는 이를 개탄하며 무장을 훈련시킬수 있는 역대 병서 및 기타 역사책에서 병법에 대한 유익한 자료를 수집하였다.

21) 『패편』은 백과사전형식의 내용을 기록한 것으로 당순지에 의해 저술되었다.

22) 『성학대성』은 중국 전통의 명리학 저작으로 성학자의 말을 차례차례 엮어 그중에 주석을 달고 논단을 하는 등 성가의 고법에 대한 대비가다.

23) 『연금통찬』은 사람의 운명을 논하는 술수서증의 하나이다.

24) 『도서편』은 옛 사람의 그림과 글을 편집하여 옮겨놓은 책이다.

25) 『소곡집』은 시문집이다.

26) 『금성이건』은 역의 원리를 이용한 술수서증의 하나이다, (禽星之用不一, 此專取七元甲子局, 用翻禽倒將之法推時日吉凶, 以利於

』28), 『기효신서』29) 『봉신연의』30) 등에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이들은 의서류, 병가류, 술수류 뿐만 아니라 시(時)나 소설과 같은 문학 등 다양한 부분으로 확대 활용되었던 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다양한 부분으로 확대되었던 내용들은 당연히 청대(清代)로 이어져 일반사람들의 생활 깊숙이 스며들어 확산되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황제의 칙명으로 정리된 『흠정사고전서』31)에서도 천문사상 관련 다양한 내용이 전한다. 그 외에도 28수는 소설과 같은 이야기 속에서도 그 이름이 자연스럽게 사용될 정도로 광범위하게 유포되었다.

조선시대 28수에 대한 용례는 조선왕조실록이나 『승정원일기』를 비롯해 각종 사서 등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내용으로 모두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데 별자리 즉 천문에 관한 내용이 대부분이다. 주로 천문을 읽고 그것을 인사(人事)와 연관시키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은 『태종실록』의 기사이다.

달이 금성(金星)을 범하니 일관(日官)을 불러 말하기를 “내가 《문헌통고(文獻通考)》를 보니, 28수(宿)가 하늘에 포열(布列)해 있고, 여러 나라(列國)가 각기 열수(列宿)의 분도(分度) 안에 있게 되어, 만약 성변(星變)이 있게 되면 그 분도(分度) 안에 있는 나라가 이를 근심하였다.”32)

28수와 28수 형상을 구분해 볼 필요가 있는데, 28수 별자리에 대한 해석은 천체의 운행과 역(歷-달력)의 기본 원리로 이해되었고, 역법(曆法)과 연관된 천문의 해석은 제왕의 정치적 행보뿐만 아니라 인사(人事)의 길흉을 논하는 방법33), 지식인들의 시상(詩想)의 인

用)

27) 『승암집』은 명대의 저명한 학자 양신에 지어진 것으로 평생 작품이 많은데 문학작품은 주로 ‘승암집’에 수록돼 있다. 양신은 이동양과 다른 용생구자 명단을 작성했다.

28) 『진택집』은 시문집이다. 명대 정덕 12년(1517), 왕거(王鰲) 68세의 나이로 자신의 옛 시어 문장의 결집으로 그가 직접 원고를 정해 ‘진택문집’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29) 『기효신서』는 명나라 병법서로 치계과이 전쟁에서의 경험을 총결산한 내용을 수록하였다.

30) 『봉신연의』는 명대 허중립이 쓴 장편소설로 일명 『봉신방』 『상주열국전』, 『무왕별간외사』, 『봉신전』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린다. 이 소설은 역사관념, 정치관념으로 사상의 틀로 군자에 대한 저자의 저자의 옹호와 찬송, 무도한 혼군에 대한 불만과 반항을 담고 있다.

31) 『흠정사고전서』, 건륭 42년에 황제의 칙명을 받들어 편찬한 역사서로 지형과 방위를 근거로 증명하고 오랫동안 전해오는 풍속을 근거로 증험한 바를 인증하여 4개 부분으로 나누어 기록하였다.

32) 『태종실록』, 태종 11년 신묘(1411) 1월5일 병인

33) 『세종실록』, 세종27년 을축(1445) 3월 30일 계묘

용구 등 다양한 방법으로 널리 활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경복궁 영건일기』에서 28수 형상에 대한 직접적인 용례를 찾을 수 있었다는 것은 동아시아 문화권의 자연·인문학적 환경이나 중원 문화의 역사적 행보 안에서 크게 다르다고 보기 어렵다. 조선시대 28수 형상이 나타나는 구체적 문헌으로는 『선택기요』34), 『오주연문장전산고』35), 등에서 볼 수 있는데 이들은 모두 중국의 천문역법 관련 술수서로서 별자리에 대한 해석이 형상의 이미지와 함께 인사의 길흉을 점치기 위한 방법으로 사용되었다. 뿐만 아니라 당시 신분사회의 지배 계층을 이루던 위정자들의 내재된 중심사상이 이를 구성하는 하나의 중요한 원리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고대 우리 사회는 정치·경제·사회·종교·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중원 문화를 받아들이고 있었는데 당시 사회에서 유행하던 시나 소설 등의 유입은 새로운 문화를 이해하고 익히는 하나의 통로가 되었고 그것을 발전시켜 독특한 문화로 정착시킬 수 있었다. 특히 사대부들에 의해 읽혀졌던 신마소설(神魔小說)인 『봉신연의』나 『서유기』 등에는 28수 서수들의 이름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들의 영향은 시사에도 자주 등장할 뿐만 아니라 건축적 요소로서도 유용한 자료가 될 수 있었다. 『서유기』에 나오는 소설의 주인공인 대당사부를 비롯한 손행자·저팔계·사오정 등이 조선말에 지어진 궁궐건축의 지붕 모서리 잡상으로 표현되는 것과는 함께 연결해 볼 수 있는 근거가 되기도 한다. <표 1>의 28수 형상36)은 명대 당순지에 의해 쓰여진 『무편』의 내용으로 28수 형상이 전투를 위한 형상으로 표현되었다.

표 1. 28수 형상

	동방칠수			북방칠수			서방칠수			남방칠수		
목	각	목	교	두	목	해	규	목	랑	정	목	한
	角	木	蛟	斗	木	獬	奎	木	狼	井	木	豸
	교룡			해치			이리			들개		
금	항	금	룡	우	금	우	루	금	구	귀	금	양
	亢	金	龍	牛	金	牛	婁	金	狗	鬼	金	羊
	용			소			개			양		

34) 『선택기요』는 조선 철종 때의 천문학자 남병길(南秉吉)이 천문역법(天文曆法) 및 간지술(干支術)을 가르치기 위하여 지은 책.

35) 『오주연문장전산고(五洲衍文長箋散稿)』는 조선 후기 현종 때, 이규경이 우리나라·중국(中國)을 비롯한 여러 나라 고금(古今)의 사물에 대하여 고증하고 해설한 책이다

36) 『欽定四庫全書』 <子部·兵家類·武編·前集卷四> 二十八宿形像.

토	저 氏	토 土	학 貉	여 女	토 土	북 蝠	위 危	토 土	치 雉	류 柳	토 土	장 獐
	오소리			박쥐			꿩			노루		
일	방 房	일 日	토 兔	허 虛	일 日	서 鼠	묘 昴	일 日	계 鷄	성 星	일 日	마 馬
	토끼			쥐			닭			말		
월	심 心	월 月	호 狐	위 危	월 月	연 燕	필 畢	월 月	오 烏	장 張	월 月	록 鹿
	여우			제비			까마귀			사슴		
화	미 尾	화 火	호 虎	실 室	화 火	저 猪	자 豕	화 火	후 猴	익 翼	화 火	사 蛇
	범			돼지			원숭이			뱀		
수	기 箕	수 水	표 豹	벽 壁	수 水	유 兪	삼 參	수 水	원 猿	진 軫	수 水	인 蚓
	표범			알유			유인원			지렁이		

3. 근정전 월대의 28수 서수상

사신과 12지신에 대한 내용은 이미 다들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것이므로 중언부언의 설명은 피하고 28수 중에서도 근정전에 배치된 서수의 특징에 관한 내용을 좀 더 집중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3-1. 상하 월대 모서리의 법수·쌍법수

사방 각 모서리 방향에 법수를 놓았는데 전면 상·하월대 모서리 방향 아래에는 쌍법수를 배치하였다. 법수(法獸)는 법(法)이라는 말 그대로 어떤 것을 보호하거나 무엇을 지키기 위한 동물상을 말한다. 『경복궁 영건일기』의 법수석에 대한 내용은 “상하의 네 귀퉁이에 쌍법수석(雙法數石)을 각각 1좌씩 둔다. [혹은 이문(螭吻)이라 하는데 제□권 광화문에 보인다.]”라고 해석하고 있는데, 제3권 광화문편에 보이는 내용과 연관되고 있다.

“근정전에 둔 것은 옛 제도에 있는 것으로 혹자는 이문이라고 하는데 옳고 그름을 알지 못하겠다. 『대류총귀(對類總龜)』를 살펴보면 ‘용이 아홉 아들을 낳았다고 하는데, 일명 조풍(嘲風)은 모험을 좋아하여 전각 귀퉁이(殿角)에 세우고, 일명 치문(蚩吻)은 삼키기를 좋아하여 전각 용마루에 세웠다’고 한다. 『박물지일편』에 이르기를 ‘이문(螭吻)은 형상이 짐승과 같고 천성이 바라보기를 좋아하므로 전각 귀퉁이에 세우며, 만전은 모양이 용과 같고 성격이 풍우를 좋아하므로 전각 용마루에 세운다.’고 한다. 대개 조풍이 일명 이문이다. 치문은 일명 만전이다. 『당회요』에 이르기를 ‘한무제때 백량대가 불났는데 월나라 무당이 술법을 부리며 말하기를 ”바다 가운데

데 이름을 규(蚩)라는 물고기가 있어 그 꼬리가 치(螭)와 비슷한데 물결을 치면 비가 내리므로 그 형상을 따라 만들어 전각 용마루에 두면 화재를 막을 수 있습니다.”하였다’ 또 혹자는 ‘백량대에 화재가 발생해 월나라 무당이 압승(壓勝)의 방법으로 곧 건장궁을 세워 드디어 전각 용마루에 치미(鷓尾)의 모양을 만들었다’ 하였다. 지금 전각 용마루에 물상(物像)이 많이 있으나 치미가 있는지 보이지 않으므로 이를 기록하여 후일에 참고에 대비했다.<sup>37)</sup>

위 글에서 이문, 조풍, 만전, 치미, 치문 등 여러 가지 명칭이 소개되고 있는데 이들은 모두 용생구자(龍生九子)에 속하는 형상들이다. 용생구자는 중국 전설에 등장하는 동물로 용이 낳았다는 용의 아홉 자식을 가리킨다.

표 2. 용생구자

	회록당집(懷麓堂集)		승암외집(升庵外集)	
	명 호	성 정	명 호	성 정
장 자 (長子)	수 우 (四牛)	·음악을 좋아함 ·거문고 머리등의 장식	비 회 (鼯鼠)	·무거운 짐 ·비석 밑 받침 돌
차 자 (次子)	애 자 (睚眦)	·살상을 좋아함 ·칼자루등 무기에 사용	이 문 (螭吻)	·바라보기 ·지붕위 수두
삼 자 (三子)	조 풍 (嘲風)	·바람을 좋아함 ·위엄상징 ·모퉁이에 세움	포 퇴 (蒲牢)	·울기 ·쇠북 위의 꼭지
사 자 (四子)	포 퇴 (蒲牢)	·울부짖기 ·범종 위에 놓음	폐 한 (狻猊)	·다투기 ·호랑이상 ·옥문 앞
오 자 (五子)	산 예 (狻猊)	·불을 좋아함 ·사자상 ·향로의 발이나 대문의 장식	도 철 (饕餮)	·음식 선호 ·술 뚜껑 위
육 자 (六子)	폐 하 (霸下)	·무거운 것 ·거북이상 ·장수의 상징	공 복 (蚣蝮)	·물을 좋아함 ·다리기등
칠 자 (七子)	폐 한 (狻猊)	·호랑이상 ·옥문, 관아 앞 양쪽에 배치	애 자 (睚眦)	·죽이기 ·칼 고리
팔 자 (八子)	부 회 (負負)	·문장, 예술선호 ·비석의 위, 옆	산 예 (狻猊)	·불 ·행로의 다리
구 자 (九子)	이 문 (螭吻)	·물외성질 ·불을 삼키기 ·전각 양 끝	초 도 (椒圖)	·단기 ·문포수

용생구자는 중국 문화에서 시작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다양한 설이 존재하고 있으나 중국에서 전해지는

37) 『국역 경복궁영건일기 1』, 서울역사편찬원, 2019, 337-338쪽

설은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명대 이동양의 『회록당집』과 양신의 『승암외집』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sup>38)</sup> 『회록당집』의 용생구자는 수우(囚牛), 애자(睚眦), 조풍(嘲風), 포뢰(蒲牢), 산예(狻猊), 폐하(霸下), 폐한(狻猊), 부희(負屭), 이문(螭吻)이고, 『승암외집』은 비희(鼉), 이문(螭吻), 포뢰(蒲牢), 폐한(狻猊), 도철(饕餮), 공복(蚣蝮), 애자(睚眦), 산예(狻猊), 초도(椒圖)의 순으로 양신은 이동양과 다른 용생구자 명단을 작성하였다. 이들은 각각 그 모습과 성격이 달라 각자 특성에 어울리는 장소에 그 형상이 활용되었다.<sup>39)</sup>

이와 관련하여 조선시대 문헌 중 『성호사설』에서는 두 가지 설 이외에 또 다른 형태의 용생구자 형태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첫 번째는 『승암외집』과 같은 용생구자로 <표 2>의 내용과 같다. 두 번째는 사조제(謝肇淛)<sup>40)</sup>를 근거로 용생구자의 성격을 나타내고 있는데, 비록 순서가 다르긴 하나 각 명칭에 대한 특징은 『회록당집』의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다. 부희(負屭)를 비희(鼉)라고 하고 있지만 비희의 특성을 ‘글을 좋아 한다’고 한 것으로 보아 여덟 번째 부희를 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세 번째는 『박물지(博物志)』를 근거로 또 다른 용생구자이다. “헌장(憲章)은 간혀 잇기를 좋아하고, 도철(饕餮)은 물에 들어가기를 좋아하고, 실석(蟋蟀)은 비린 냄새를 좋아하고, 만진(蠻蜃)은 바람과 비를 좋아하고, 이호(虯虎)는 무늬 있는 채색을 좋아하고, 금예(金猊)는 연기를 좋아하고, 초도(椒圖)는 입다물기를 좋아하고, 규설(虯螭)은 위험한 곳에 서 잇기를 좋아하고, 오어(鰲魚)는 불을 좋아하고, 금오(金吾)는 잠을 자지 않는다.”<sup>41)</sup>고 하였다. 『박물지』는 심지어 구자(九子)가 아닌 십자(十子)를 소개하고 있어 사회에 만연했던 용에 대한 인식이 다양한 형태로 표현되었음을 알 수 있게 한다. 이와 함께 ‘어떠한 것이 옳고 그른지 알지 못하겠다’고도 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은 《대류총귀(對類總龜)》와 《박물지일편(博物志逸篇)》의 글이라는 것을 상기해볼 필요가 있다. 박지원의 「동란섭필」<sup>42)</sup>에서도 이 두 문헌의 예를

들면서 “이와 같이 여러 가지 이야기가 역시 다 각각 다르니, 용 새끼의 명호(名號)와性情(性情)을 무엇으로 알 것인가! 옛날이야기의 부회함이 이런 것이 많았다”고 정리하고 있어 조선 사회가 이러한 형태의 내용을 모두 쉽게 받아들이고 있었던 것은 아닌 듯하다. 그러나 이글에서도 용생구자가 이치에 맞는가 또는 아닌가에 대한 것이라고 하기 보다는 사회에 만연한 이야기가 각각 다르게 전해지고 있었다는 뜻으로 이해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동양에서 용(龍)은 신화나 전설에 자주 등장하는 상상의 동물로 신성한 힘을 지닌 상서로운 존재로 여긴다. 용생구자의 용례에서 보여주는 것과 같이 용의 형상이 다양한 부분으로 활용되고 선호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사람들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그들의 마음속에 용의 신비스럽고 영험함을 기원하는 마음이 곳곳에 스며있었다는 뜻이기도 하다. 특히 궁궐은 국가의 최고 통치자가 머물며 국정을 논하는 책임 있는 장소로서도 상징성은 더욱 깊다 할 것이다.

따라서 근정전 월대 모서리 법수 이문에 부여된 의미를 확장시켜 다양하게 해석해 보는 것 또한 의미가 있다 할 것이다. 용생구자 중 『회록당집』의 구자이문으로도 볼 수 있으며, 『승암외집』의 차자이문으로도 볼 수도 있다. 이문의 이(螭)자는 교룡(蛟龍)의 뜻을 가진 한자어로 28수중 동방칠수 교룡교(蛟)자와 같은 의미로 쓰이는 글자이고, 전설속에 나오는 뿔없는 용, 용의 새끼, 암컷, 맹수 등 다양한 의미로 사용 된다<sup>43)</sup>. 뿐만 아니라 이문은 치미(雉尾) 또는 치문(蚩吻)이라고도 하여 바다에서 사는 짐승의 형상으로 궁전의 화제가 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수에 해당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문으로 해석하고 있는 쌍법수의 형상을 자세히 살펴보면 옆과 앞부분으로 감싸 않은 듯한 작은 새끼 모습의 교룡형상을 볼 수 있다. 흡사 도룡뇽의 모습으로 보이기도 한다. 각 모서리 법수의 형상에서도 정확하게 형태는 알 수 없으나 작은 물고기들의 모습이 함께 조각되어 있는 형상들이 보인다. 어떤 법수에는 뱀장어와 같은 형상이 붙어있기도 하고 어떤 법수에는 오징어 형상으로 보이기도 한다. 이들은 모두 물에서 사는 짐승을 말하며 수(水)를 관장하는 수호신과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 형태

38) 중국 검색 포털 사이트: www.baidu.com: 龍生九子, 《中國吉祥圖說》: 검색일: 2019. 12. 10.

39) 이를 龍生九子,各司其職이라고함

40) “용이 새끼 아홉을 낳았는데, 포뢰(蒲牢)는 울기를 좋아하고, 수우(囚牛)는 소리를 좋아하고, 치문(蚩吻)은 삼키기를 좋아하고, 조풍(嘲風)은 위험한 것을 좋아하고, 애자(睚眦)는 살상을 좋아하고, 비희(鼉)는 글을 좋아하고, 폐한(狻猊)은 다투기를 좋아하고, 산예(狻猊)는 앉기를 좋아하고, 폐하(霸下)는 무거운 것 짊어지기를 좋아한다.”고 하였다.

41) 『성호사설6권』, 「만물문」: 용생구자

42) 박지원, 『얼하일기』, 「동란섭필」은 박지원이 동란재(銅蘭齋)에 머무름 때의 수필로 주로 가사(歌辭)·향시(鄕試)·서적(書籍)·언해(諺解)·양금(洋琴) 등에 대한 잡록(雜錄)이다.

43) 『欽定四庫全書』 <經部·小學類·訓詁之屬·埤雅·卷一>:蛟

를 수형(獸形)으로 만들기도 하고 어형(魚形)으로 만들기도 하였다는 것으로 보아 근정전에 놓인 범수는 수형과 어형을 함께 표현하고자 했던 용생구자 이문으로 볼 수 있으며 화재에 취약했던 궁전을 보호하기 위한 비보의 한 방법에 해당하였던 것으로 볼 수 있다.

3-2. 남보계에 놓인 북방칠수 해치(獬豸)



그림 2. 북방칠수 해치(獬豸)

해치(獬豸)는 정직하고 충성스러운 동물로 인간을 도와주는 선량한 존재이고, 시비와 선악을 판단하는 우리에게 잘 알려진 서수이다. 『비아』 『태평어람』 『논형』 『후한서』 『나사로사여론』 『소씨연의』 『신이경』 등 다양한

고전의 해석에서 비슷한 이야기가 전해진다. 해치는 신비한 동물이었기는 하나 민간에서 친숙하게 여겨져 그 형상에 대해서도 소, 양, 코끼리 등 설이 다양하다. 요 임금 때 형옥(刑獄)을 담당한 고요(皋陶)가 송사를 처결할 때 해치가 먹는 음식과 행동을 예의 주시하여 시비와 선악을 판단하였다고 한다. 해치와 관련된 글자인 ‘천(薦)’자는 상형문자로 卩(폴초)자와 薦(해태치)자가 결합한 모습으로 뿔이 달린 해치를 그린 것으로 ‘짐승이 풀을 뜯어 먹는 것이다(獸之所食草)’라고 풀이하고 있다. 금문에는 해치가 몸을 치켜세운 채 풀을 뜯어 먹고 있는 모습이 그려져 있어 ‘천거하다’나 ‘올리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가 되었다. 『신이경』에서도 “동북의 변경에 있는 어떤 짐승의 생김새는 양과 같으나 뿔이 하나 있고 털이 푸른빛이며 네발은 곰과 같다. 천성적으로 충성스럽고 정직하다. 사람들이 다투는 것을 보면 잘못된 사람을 들이받고, 말싸움하는 것을 들으면 거짓말한 사람을 문다. 이름을 해치(獬豸)라고 하고 일명 임법수(任法獸)라고도 한다.”<sup>44)</sup> 해치는 동북쪽의 변경 가운데에 있는 동물로 감옥의 계단을 동북쪽으로 세운 것도 해치가 그쪽에 있기 때문이라고 되어 있다. 따라서 해치가 법의 상징이 되었고 법관을 해치라고 한다.<sup>45)</sup> 근정전 해치상은 양의 모습으로 만

44) 동방삭, 김지선 옮김. 『신이경』, 지만지. 2008, 169쪽

45) 『欽定四庫全書』 <經部·小學類·訓詁之屬·埤雅·卷五>: 獬豸

들어 졌으며 법을 지키는 수호자의 역할을 의미한다.

3-3. 남방칠수 한(豸·들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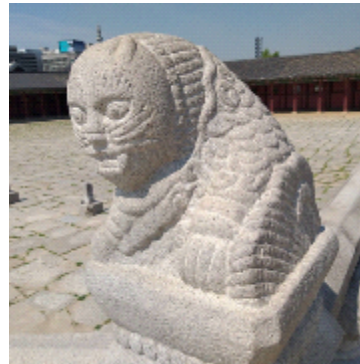


그림 3. 남방칠수 한(豸·들개)

한(豸)은 안(豸)자와 같은 뜻으로 쓰이는 글자로 들개(野犬)를 가리키는 남방칠수이다. 근정전 남방 2층에 놓인 한(豸)은 모습이 호랑이를 닮은 듯하고 해치를 닮은 듯하여 기존의 연구에서도 12

지신중 인(寅)의 호랑이로 가장 많이 해석되었던 신수이다. 이 신수의 모습은 용생구자중 폐한(豸豸)과도 모습이 비슷해 어떤 것인지 구분하기가 쉽지 않다. 『성호사설』의 내용에서도 여우의 모습인지 개의 모습인지 어지간히 구별하기가 쉽지 않았던 모양이라는 내용이 전한다.

“폐한(豸豸)이란 것은 《자서(字書)》에 상고하니, ‘일종의 개[犬]로서 주둥이가 검고 도둑을 잘 지키는 까닭에 옥(獄)을 한(豸)이라 한다’ 했고, 또 한(豸)은 한(豸)과 같은데 들개(野犬)라는 것이다. ‘여우처럼 생긴 것이 몸둥이는 검고 키는 일곱 자나 되며 머리에는 뿔이 하나로 되었다. 오래 묵으면 몸에 비늘이 생기고 호랑이도 능히 잡아먹을 수 있기 때문에 사냥하는 사람이 모두 두려워한다.’고 하였다. 《주례(周禮)》에는 ‘군사가 한후(豸侯)를 쓰는데 한(豸)이란 개는 도둑을 잘 지킨다. 군사도 잘 지키는 것을 좋게 여기는 까닭에 한후를 쓰도록 한다.’ 하였으니, 옥문(獄門) 앞에 세워 놓았다는 한(豸·豸)도 이런 따위를 가리킨 것인 듯하다.” 고 전한다.<sup>46)</sup>

『산해경』에서 소개하는 짐승중의 하나도 “호랑이 같은데 소의 꼬리를 하고 울음소리는 개 짖는 소리를 낸다.”<sup>47)</sup>고 하여 남방칠수인 한(豸)을 가리키는 듯하다. 한(豸)은 일반적인 들개의 모습이 아닌 아주 강력하고 무서운 맹수중의 하나였던 것으로 보여 진다.

46) 『星湖僊說』卷6 「萬物門」, 龍生九子.

47) 장수철, 『산해경』 「남산경」, 도서출판 울재, 2005, 29쪽



3-4. 동방칠수 교(蛟)와 낙(駱)



그림 4. 동방칠수 교(蛟·교룡)

교(蛟)는 동방칠수중 각수에 배치된 용과에 속하는 동물이다. 형상은 뱀처럼 생겼는데 네발이 있고 목이 짧고 목에서 새끼를 기른다. 알에서 태어나고 눈썹이 서로 붙어있고 머리와 꼬리가 교차되고 비늘이 있는 것을

교룡이라고 한다. 『술이기』에서는 ‘구렁이의 눈은 동그랗고 교룡의 눈썹은 서로 붙어있다. 교룡의 몸은 청색이고 몸이 유연해서 꼬리를 돌돌 말아서(肉環) 먹이를 잡는다.’<sup>48)</sup>고 하였다. 근정전 교룡의 형상을 보면 중심 부분에 잡은 먹이가 어떤 것 인지 분명하지는 않지만 육환으로 말아 올려 먹이를 잡고 있는 교룡의 모습이



그림 5. 동방칠수 낙(駱·낙타)

제2장에 제시하고 있는 동방칠수중 세 번째 신수는 학(貉, 오소리)으로 배정하고 있다. 학은 족제빗과 동물로 대개 오소리, 너구리, 담비 등이 속한다. 낙(駱)은 28수의 동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근정전 협보계 하월대에 학(貉)

이 아닌 낙(駱, 낙타 또는 말)이 놓였다. 28수를 나타내는 대부분의 도서들도 낙(駱)자가 아닌 학(貉)으로 배정되었으며 타 방위의 서수 배열과 비교해 보아도 28수에 배정된 서수는 학(貉)이 맞는 구성이다. 그러나 근정전에 낙(駱·낙타)이 배치가 된 것이다. 서수의 형상을 자세히 살펴보면 등에는 말의 갈기인지 낙타의 구부러진 등인지 구분하기 어려우나 굽게 두 줄의 도드라져 표현되어 있고 길게 내려온 꼬리털이며 특히 발굽을 보면 말이나 낙타의 형상이다. 확실하게 족제빗과 동물인 오소리나 너구리, 담비는 아닌 듯하다. 낙(駱)과 학(貉)은 한자 앞의 변수에서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말마련의 낙과, 발없는벌레치변의 학이 된다. 한

48) 『欽定四庫全書』 <經部·小學類·訓詁之屬·埤雅·卷一>: 蛟

어의 유의어 사용에 있어서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될 수도 있지만 내용에서 두 글자는 그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으로 글자를 바꾸어 사용하게 된 의미를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다.

경복궁은 처음부터 풍수에 의해 자리를 잡은 곳으로, 북악을 주산으로 동쪽 청룡자락에는 산의 모양이 낙타의 등과 같다고 하여 낙타산(駱駝山), 타락산(駝駱山) 또는 낙산(駱山)이라고 불린다. 이것은 자의보다는 글자의 모양이 비슷한 대체어를 사용함으로써 대체 사용된 글자에 중의적 의미를 부여하려고 했던 의도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풍수에서 사신사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사신사는 용과 혈의 생기를 바람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이 가장 큰 역할이다. 경복궁의 혈을 감싸안은 듯 청룡으로 뻗어 내린 낙산의 형상과 낙타상등은 모두 비보를 위한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것으로 풍수의 비보적 의미와 함께 계획된 배치로 유추해 볼 수 있다.

3-5. 서방칠수 랑(狼)과 원(猿)



그림 6. 서방칠수 랑(狼·이리)

랑(狼)은 개과에 속하는 산짐승으로 이리이다. 늑대보다 크고 귀가 쫑긋하며 꼬리를 늘어뜨린다. 성질이 급하고 사나워 인축(人畜)을 해친다. 겉모습은 개나 송냥이와 비슷하고 발은 호리호리하고 눈은 가름하며 상악

골은 끝이 길다. 털의 색은 산지에 따라 다르며, 다모색, 갈색, 회황색, 약간 검은색이 섞이고 아랫부분은 흰색을 띤다. 적응력이 뛰어나고 서식 범위가 넓다.<sup>49)</sup> 그동안 12지신중 양으로 가장 많이 해석된 동물이다.

원(猿)은 유인원이라는 뜻으로 원(猿)과 동의어이다. 28수형상중 후와 원이 분류의 차이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원숭이류는 동물계에서 가장 진화의 정도가 높은 것에서 극히 원시적인 것까지 포함하고 있어 여러 갈래에 걸친 진화단계의 동물을 한 군 속에 지니고 있다. 꼬리가 있는 원숭이류로 자수에 후(猴)로 배치하고, 꼬리가 없는 유인원류는 삼수에 원(猿)으로 배치되었다. 영미권에서도 원숭이는 ‘monkey’로 긴 꼬

49) 『欽定四庫全書』 <經部·小學類·訓詁之屬·埤雅·卷四> :狼



그림 7. 서방칠수 원(猿·유인원)

리를 가지고 있는 것만을 말하며, 꼬리가 없는 것은 ‘ape’ 이라고 하여 오랑우탄, 침팬지 등 고등 유인원을 말한다.<sup>50)</sup> 12지신중 신(申)은 자수의 원숭이 후와 같은 종류로 꼬리가 있는 것을 말한다. 유인

원류는 사람과 가장 닮았다고 하여 붙여진 것으로 꼬리가 없고 원숭이보다 생물학적으로도 훨씬 진화된 동물이다. 원숭이 보다 몸집이 크고 다리보다 팔이 길다. 구강양쪽 볼에 주머니가 있어 음식을 저장하고 있다가 여유가 있을 때 다시 씹는다. 유인원은 엉덩이에 굵은 살 즉 엉덩이 혹이 있다. 『백호통』에 따르면 “원숭이는 천성적으로 영리하고 사냥꾼의 미끼를 식별하는 데 능숙하며 먹이를 쉽게 가져가지 않고 오랫동안 엿보다가 행동한다”<sup>51)</sup>고 하고 있다. 서방칠수중 수성에 배치된 서수상으로 사람의 형상과 가장 가까운 유인원이 배치되었다.

#### 4. 근정전 월대의 서수상 배치에 대한 해석과 상징적 의미

경복궁에서도 근정전은 가장 높고 웅장함이 돋보이는 중층의 건축물이다. 사방의 회랑과 맞닿은 근정문을 들어서 넓은 마당을 지나면 하월대, 상월대 두개 층으로 기단이 넓게 조성되어 정전을 받치고 있다. 두 층 기단에는 사방으로 돌난간이 빙 둘러져 중후함을 더한다. 각 네 방향에 모두 계단이 있는데, 남쪽과 북쪽에는 하나씩이고 동쪽과 서쪽에는 두 개씩 나있다.<sup>52)</sup> 그 중 남쪽 계단은 다른 계단에 비해 장엄과 웅장이라는 표현에 어울릴 수 있도록 화려하게 조성되었다. 정전으로 올라가는 계단 중심에는 봉황 그림이 새겨진 장방형의 담도가 있으며 담도 옆으로 크기에 걸맞게 전신의 용상이 놓여있다. 정면 계단의 넓이는 근정문까지 연결되는 삼도의 넓이와 맞추어져 있고 가운

데 담도를 기준으로 양쪽으로 계단이 나누어져 있다. 담도의 양쪽으로 계단 앞에 용두 법수석이 놓였는데 마치 근정전을 단단히 지키고 있는 듯한 모습이다. 담도 부분은 삼도에서 중심도의 돌출된 부분과 이어져 있고 계단의 법수가 놓인 양쪽 끝부분에 맞추어 삼도의 넓이가 정해진 것으로 건축의 정교함과 세심함을 엿볼 수 있게 한다. 각 계단으로 조성된 돌난간 사이에 여러 동물상이 놓여 있는데 고종시기 작성된 『경복궁 영건일기』에서 근정전 월대의 구조와 서수 명칭에 대한 자세한 기록<sup>53)</sup>을 확인할 수 있다.

근정전 상하 월대(月臺)에는 박석을 깔고, 상하의 네 귀퉁이에 쌍법수석(雙法數石)을 각각 1좌씩 둔다. [혹은 이문(螭吻)이라 하는데 제□권 광화문에 보인다.] 상하 월대에는 석난(石欄)을 둔다. 보계의 좌우로는 난간의 주두(柱頭)에 모두 법수(法獸)를 새긴다. 대개6곳의 보계는 [또는 경지대(擎支臺)라고 이름한다.] 상하의 대를 합쳐서 12곳이 된다. 보계의 가장자리 돌의 아래에 드리운 용두(龍頭) 및 남쪽 보계의 어간석의 남쪽에 새긴 쌍봉과 네 귀퉁이의 쌍법수는 옛 월대의 제도이며, 석난은 새로운 제도이다.

남쪽의 보계는 [곡난(曲欄)을 아래로 드리워서 낙간에 4층의 기둥이 있다.] 제1층은 해치(獬)이며, [사실과 왜곡을 능히 판별하는 동물이다.] 2층은 말이며, [즉 오방(午方, 남쪽)이다.] 3층은 안(狻)이며, [남방칠수는 안(狻), 양(羊), 노루(獐), 말(馬), 사슴(鹿), 뱀(蛇), 지렁이(蜃)이다.] 4층은 봉황이다. [즉 주작(朱雀)이다.]

동쪽의 보계는 [이하하는 모두 2층의 난간기둥이다.] 제1층은 토끼이며, [즉 묘방(卯方, 동쪽)이다.] 2층은 용이다. [형상은 청룡(靑龍)이다.] 동쪽의 험보계는 제1층은 낙타(驢)이며, 2층은 교룡(蛟)이다. [생각컨대 동방칠수는 교룡(蛟), 용(龍), 낙타(駱), 토끼(兔), 여우(狐), 호랑이(虎), 표범(豹)이다.]

서쪽의 보계는 제1층은 닭(鷄)이며, [즉 유방(西方, 서쪽)이다.] 2층은 호랑이 [虎]이다. [즉 백호(白虎)이다.] 서쪽의 험보계는 제1층은 원숭이 [猿]이며, 2층은 이리 [狼]이다. [생각컨대 서방칠수는 이리(狼), 개(狗), 꿩(雉), 닭(鷄), 까마귀(烏), 원숭이(猴), 원숭이(猿)이다.]

53) 『경복궁영건일기』 8권, 1867년 10월 9일. “勤政殿 上下月臺鋪磚石. 上下四隅置雙法獸石各一坐(或云 螭吻 見 光化門). 上下月臺爲石欄 至於步階之左右. 則欄干柱頭俱刻以法獸. 蓋六處步階(又名擎支臺)合上下臺 爲十二處而步階邊石之下 垂龍頭. 及南步階御間石之陽刻雙鳳. 與四隅之雙法獸 則舊月臺之制 而石欄乃新制也. 南步階(爲曲欄下垂 故欄 有四層柱) 第一層 獬(能辨 曲直之 獸), 二層馬(應午), 三層狻(南方七宿 狻羊獐馬鹿蛇蚺), 四層鳳(應朱雀). 東步階(以下皆二層欄柱) 第一層 兔(應卯), 二層 龍(像靑龍). 東挾步階 第一層 駱, 二層 蛟(按東方七宿 蛟龍駱兔狐虎豹). 西步階 第一層 鷄(應酉) 二層 虎(應白虎). 西挾步階 第一層 猿, 二層 狼(按 西方七宿 狼狗雉鷄烏猴猿). 北步階 第一層 鼠(應子 按 北方七宿 獬牛蝠鼠燕猪兪), 二層 龜(按玄武). 殿庭 鋪磚石 豎 品石 二十四塊(文武品 各十二塊 以 簡儀臺所 毀 玉石爲之)”

50) [네이버 지식백과]: 원숭이 [monkey] (두산백과) 검색일:2019,8,10.

51) 『欽定四庫全書』 <經部·小學類·訓詁之屬·埤雅·卷四>:猿

52) 홍순민, 『홍순민의 한양읽기 궁궐 (하)』, 놀와, 2017, 49쪽

북쪽의 보계는 제1층은 쥐 [鼠]이며, [즉 자방(子方, 북쪽)이다. 생각건대 북방칠수는 해치(獬), 소(牛), 박쥐(蝠), 쥐(鼠), 제비(燕), 돼지(猪), 유(獮)이다.] 2층은 거북이(龜)이다. [생각건대 현무(玄武)이다.]<sup>54)</sup>

본문의 내용과 같이 경복궁에 배치된 서수상은 천신상(天神象)과 지신상(地神象)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천신에 해당하는 것은 사신(四神)과 28수(宿)이고, 지신에 해당하는 것은 12지신이다. 이들은 모두 사방의 방위체계와 관련된다. 계단을 모두 보계(步階) 또는 경지대라고 하였으며, 동서쪽의 하나씩 더 있는 계단을 협보계로 부르기도 하였던 것을 알 수 있다. 상하의 대를 합쳐 12곳 보계의 가장자리에 용두를 드리웠다고 하였는데 근정전 월대에 보계와 이어진 용두형 범수석은 양쪽 쌍으로 하여 모두 6곳으로 12수가 된다. 정면 상하월대 변석 아래 4수와 상하 답도 양쪽으로 전신용상 4수가 놓이고, 동·서향 협보계 상월대에서 내려오는 변석에 각 2수씩 4수를 놓았다. 사신은 동방 청룡, 북방 현무, 서방 백호, 남방 주작으로 모두 4정방 보계의 상월대에 배치되었다. 12지신(寅卯辰巳午未申酉戌亥子丑)은 사방에 각각 삼수(三獸)씩 배치되었는데 그 중 근정전 월대에 배치된 서수는 각 방위에서도 중심을 가리키는 4정방의 서수인 자오묘유(子午卯酉: 쥐, 말, 토끼, 닭)만 사방위의 하월대에 배치되었다. 28수는 사방으로 각각 칠수(七獸)가 배치되는데 동방칠수에 배치된 동물은 교룡, 용, 낙타, 토끼, 여우, 호랑이, 표범(蛟龍駱兎狐虎豹)이고, 북방칠수는 해치, 소, 박쥐, 쥐, 제비, 돼지, 알유(獬牛蝠鼠燕猪獮)이다. 서방칠수는 이리, 개, 평, 닭, 까마귀, 원숭이, 유인원(狼狗雉鷄烏猴猿)이고, 남방칠수는 들개, 양, 노루, 말, 사슴, 뱀, 지렁이(犴羊獐馬鹿蛇蚓)이다. 사방칠수중 우리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동물은 중국 전설 속에서 전해지는 북방칠수 수성과 결합된 알유(狻猊)라는 짐승이 있다. 알유(狻猊, 窳窳) 또는 알(狻)이라고도 한다. 『산해경』 「북산경」에서 전해지는 짐승의 형상으로 “생김새가 소 같은데 몸뚱이는 붉으며 사람의 얼굴에 말의 발을 가지고 있다. 알유(狻猊)라고 부르는 이 짐승은 잣나무 같은 소리를 내고 사람을 잡아먹는다.”<sup>55)</sup>고 한다. 이 짐승은 현재는 전해지지 않는 짐승이다.

사신과 12지신은 각 방위에 맞게 배치되었으나 28수

서수상은 사정방의 배치와는 조금 다르게 배치된 것을 알 수 있다. 동방칠수는 각수(角宿)와 저수(氐宿)에 해당하는 동물을 배속하였고, 북방칠수는 두수(斗宿), 남방칠수는 정수(井宿), 서방칠수는 규수(奎宿)과 삼수(參宿)에 해당하는 동물을 배정하였다. 이들 중 각(角), 두(斗), 규(奎), 정(井)은 모두 시작과 성장을 의미하는 목성(木星)에 해당하는 별자리로 사방위 신들 중 가장 앞에 놓인 서수를 배치하였다. 남보계는 건물의 정면이고 어간석이라고 하여 다른 방향의 보계 구성과는 달리 화려하게 4층으로 구성하여서 인지 북방칠수인 해치가 북쪽에 놓이지 않고 남쪽의 가장 앞자리를 차지했다. 뿐만 아니라 근정전 실제 구성은 본문의 내용과는 다르게 배치된 것을 알 수 있다. 『경복궁 영건일기』의 구성은 해치, 말, 들개, 주작이 놓였다고 하였으나 실제 구성은 해치, 들개, 말, 주작 순으로 놓였다. 즉 2층과 3층의 구성이 뒤바뀌어 놓인 것이다. 동쪽의 구성으로 동방칠수 중 협보계의 상월대 난간에는 교룡(蛟)이 놓였고 하월대 난간에는 낙타(駱)가 배치되었다. 서쪽의 구성으로 서방칠수 중 협보계 상월대 난간에는 이리(狼)가 놓였고 하월대 난간에는 유인원(猿)이 배치되었다. 위의 구성에 대해 김민규는 사신과 십이지신이 28수보다 상위의 개념으로 보아 현재 월대의 구조가 맞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그러나 동·북·서방의 월대 배치의 살펴보면, 상월대에는 천신이 놓여 있고 하월대에는 12지신상이 놓였고, 28수는 상하월대를 구분하지 않고 배치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따라서 이것은 사신과 12지신을 상위, 28수를 하위라는 상하의 개념이라기보다는 천신은 상월대에 놓고 지신은 하월대에 배치되어 있는 형식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즉 근정전을 중심으로 사람과 천지의 어울림 즉 천지인(天地人) 삼재의 구성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남보계의 구성에서 상월대 3층에는 들개(犴)가 배치되어야 하고 하월대의 2층에는 말이 배치되어야 하는 것이 좀 더 일관성 있는 배치로 보여진다. 그러므로 『경복궁 영건일기』의 배치가 맞는 구성이라고 할 수 있다. 단순히 기록의 오류나 수리 등의 문제로 판단하기에는 내용의 구조가 너무 구체적이고 체계적이기 때문에 이후 경복궁 수난사를 통한 원인을 앞으로 좀 더 세심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54) 『국역 경복궁영건일기 2』, 서울역사편찬원, 2019, 334쪽

55) 장수철, 『산해경』 「북산경」: 又北二百里,曰少咸之山,无草木,多青碧,有獸焉,其狀如牛,赤身、人面、馬足,名曰窳窳,其音如嬰兒,是食人。敦水出焉,東流注于雁門之水,其中多鮪鮪之魚,食之殺人。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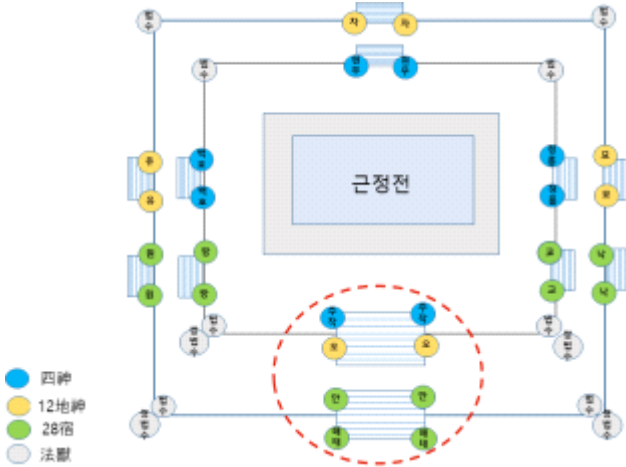


그림 8. 경복궁 근정전 월대 서수상의 배치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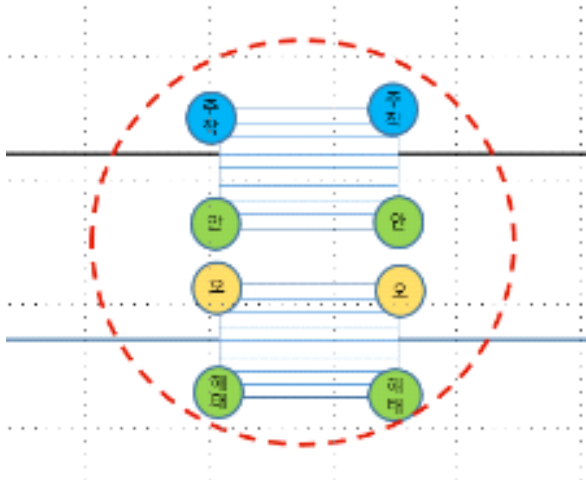


그림 9. 『경복궁영건일기』의 월대의 배치구조

경복궁에 적용된 동양사상의 상징체계는 다양한 원리가 복합적으로 적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그중에서도 서수상의 구조에서 볼 수 있는 것은 특히 삼원·사신·12지신·28수·용생구자 등 천문과 관련하여 인간의 위치를 말해주고 있다. 동양의 천문사상은 하늘과 인간의 질서체계가 서로 유기적인 상응관계에 놓여 있다는 ‘천인감응’적 사유 형식을 기반으로 한다. 고대 동양의 우주론적 세계관인 하늘과 인간사회 이 두 영역을 분리하지 않고 서로 연결시킴으로서 인간사의 여러 가지 측면을 천문의 변화와 연결 지어 설명하는 방식이다.

<그림 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중앙에는 황제(黃帝)가 자미원을 다스리고, 동방에는 청룡으로 표상되는

청제(靑帝)가, 남방에는 주작으로 표상되는 적제(赤帝)가, 서방에는 백호로 표상되는 백제(白帝)가, 북방에는 현무로 표상되는 흑제(黑帝)가 각기 사방의 일곱 별자리씩을 맡아 나누어 다스린다고 보았다.<sup>56)</sup> 『사기』 「천관서」에서는 “모든 별자리에 관직을 부여하였으니, 모두 91개의 관직에 500여개의 항성으로 인류사회의 조직과 비유된다. 이러한 조직에는 제왕으로부터 관리는 물론이고, 인물, 토지, 건축물, 기물, 동식물 등도 포함된다. 이를 동서남북과 중앙의 다섯 방위에 배치하여 각기 명칭과 관직을 부여하였으므로 하늘의 관직이라는 뜻으로 ‘천관(天官)’이라고 하였다.”고 하였다. 또한 『색은』에서는 “천문(天文)에 다섯 관직(五官)이 있다는 것을 살펴볼 때, ‘관(官)’이라고 한 것은 별의 관직(星官)을 뜻한다. 별자리에는 높고 낮음이 있으니, 마치 인간에게 관직의 서열이 있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하늘의 관직을 천관(天官)이라고 한다.”<sup>57)</sup>고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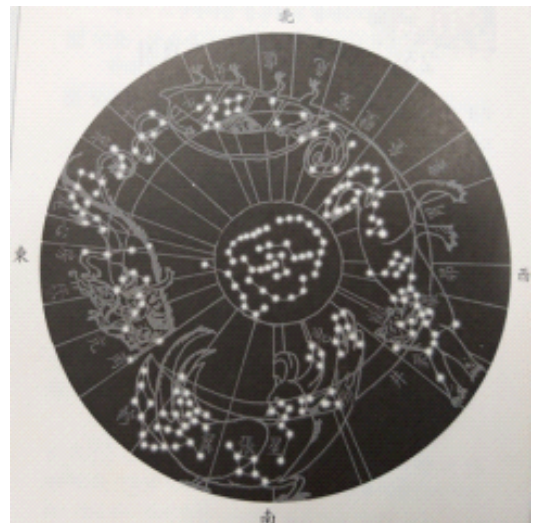


그림 10. 28수와 사신도  
(출처: 천문류초)

이러한 원리는 계절의 변화는 물론 음양오행의 자연순환 원리와의 연결되었다. 만물을 조화시키고 주재하는 토(土)의 기운을 중심으로 하여, 동방에는 봄에 해당하여 만물을 태어나게 하고 자라나게 하는 목(木)이고, 남방에는 여름으로 만물이 무성하게 자라나 꽃피우는 화(火)이고, 서방에는 가을에 해당하여 만물을 단단하게 하고 결실 맺게 하는 금(金)의 기운이며, 북방에는 겨울에 해당하여 만물을 감추고 저장하는 수(水)로 적용시켰다. 뿐만 아니라 28수의 별자리를 24방위

56) 앞의 책. 『천문류초』, 51쪽

57) 앞의 책. 『천문류초』, 54쪽

에 적용시키고 그것을 오행으로 분류한 것을 성수오행이라고 하는데 성수오행의 분류는 목(木)에는 건곤간손(乾坤艮巽), 화(火)에는 갑묘경유병오임자(甲卯庚酉丙午壬子), 토(土)에는 을신정계(乙辛丁癸), 금(金)에는 진술축미(辰戌丑未), 수(水)에는 인신사해(寅申巳亥)가 배정된다.

이러한 세계관은 근대 이전 우리 사회 저변에 깔려 있던 사고 체계이며 우리에게 매우 광대한 영향력을 주었던 사유방식의 하나로 볼 수 있다. 근정전은 사방에 이러한 천문과 관련된 서수상을 배치함으로써 하늘과 인간관계에 대한 동양 사상의 상징적 의미가 적용되어 건축물을 완성한 것이다.

### 5. 맺음말

본 연구는 기존의 사신과 12지신에 국한되어 해석되었던 부분에 대하여 28수 형태를 밝힘으로서 그 내용을 좀 더 명확히 할 수 있었다. 특히 근정전 서수중 들개, 교룡, 낙타, 이리, 유인원 등 그동안 해석에서 그 형태가 분명하지 않아 다르게 해석되었던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 볼 수 있었다. 모서리에 놓인 법수·쌍법수는 용생구자의 이문으로 불리기도 하였는데 바다에서 사는 짐승을 상징하는 것으로 궁전의 화재가 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상징적 의미라고 볼 수 있다. 이는 수(水)를 관장하는 수호신과 관련될 수 있는 것으로 화재에 취약했던 궁전을 보호하기 위한 비보의 한 방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동방 칠수중 근정전 하월대에 배치된 서수는 28수 구성과 다른 배치가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담비나 오소리가 배치되어야 할 곳에 낙타상이 배치되었다. 학(貉)자에 한자의 변자를 바꾸어 낙(駱)을 사용한 것이다. 그야말로 산이 형상이 표현된 언어적 의미와 함께 풍수 사신사의 비보적 형태의 계획된 배치로 추정하였으며 근정전 월대만의 독창적 배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았다.

서수상의 구조에서 볼 수 있는 것은 특히 삼원·사신·12지신·28수 용생구자 등 천문과 관련하여 하늘과 인간의 질서체계가 서로 유기적인 상응 관계에 놓여 있다는 천인감응 사상의 형식을 기반으로 한다. 근정전의 위치는 삼원의 자미원을 중심으로 하였고 사신(四神)으로 북현무, 남주작, 좌청룡, 우백호의 서수상을 배치하였으며, 12지신도 사정방위에 속한 사신만으로 배치된 것을 알 수 있다. 북쪽은 자(子·쥐), 남쪽은

오(午,말), 동쪽은 묘(卯,토끼), 서쪽은 유(酉,닭)이다. 28수는 사신이나 12지신의 사정방의 방위 관념보다는 좀 더 탄력적으로 운영되는 차이를 보인다. 28수중 북쪽 서수상의 해치(獬豸)는 남쪽에 배치되고 남쪽의 서수는 환(豨·들개)이 배치되었으며, 동쪽에는 교(蛟·교룡)와 낙(駱·낙타)가 서쪽에는 랑(狼·이리)과 원(猿·유인원)이 배치되었다. 뿐만 아니라 모서리 부분에도 28수의 동물적 표상인 교룡의 법수를 놓아 사방은 물론 팔방의 방위에 대응한 것으로 보인다. 근정전 남보계의 실제 서수의 구성은 해치, 들개, 말, 주작 순으로 놓였고 『경복궁 영건일기』의 내용은 해치 말, 들개, 주작 순으로 각기 다른 구성 배치에 대하여 『경복궁영건일기』의 내용을 근거로 천지인(天地人) 삼재의 구성으로 기존의 월대 구성의 배치에 대한 해석과 다르게 해석하였다. 이러한 형식은 모두 사방의 방위체계와 연관되었으며 각 방위를 상징하는 동물적 표상으로도 자리 잡게 되었다.

이상 근정전 월대 난간에 설치된 서수상의 배치 원리와 상징적 의미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건축은 한 시대를 풍자했던 시대의 잔상이자, 사상체계가 결합되어 드러난 시각적 결과물이고, 고유한 역사적 흔적이 발현된 집합체라고 할 수 있다. 근정전 월대 난간에 배치된 서수상은 국가 최고의 정치를 펼쳤던 정전으로서의 중심성을 드러내는 상징적 의미와 함께 천인합일이라고 하는 동양의 고대 천문의 사상적 체계는 물론 풍수의 비보적 성격까지도 포함하는 입체적인 성격을 하나의 건축물에 반영하여 표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참고문헌

1. 『태종실록』
2. 『세종실록』
3. 『欽定四庫全書』
4. 『星湖僿說』
5. 『景福宮營建日記』
6. 『埤雅』
7. 『太平御覽』
8. 『武編』
9. 『稗編』
10. 『星學大成』
11. 『演禽通纂』
12. 『圖書編』
13. 『少谷集』
14. 『禽星易見』

## 88 논문

15. 『松巖集』
16. 『震澤集』
17. 『紀效新書』
18. 『封神演義』
19. 『熱河日記』
20. 『選擇紀要』
21. 『五洲衍文長箋散稿』
22. 『경복궁 석조조형물 기초조사연구보고서』, 국립문화재연구소, 2011
23. 『우리나라 전통 무늬 궁능석조물』, 국립문화재연구소, 2014
24. 『국역 경복궁영건일기 2』, 서울역사편찬원, 2019
25. 김원룡, 「李朝石獸彫刻」, 향토서울 제 12호, 1961
26. 이강근, 「조선 전반기 궁궐건축의 형식과 의미에 대한 연구」, 한국불교미술사학회, 36호, 2011
27. 조은정, 「19·20세기 宮廷 彫刻에 대한 小論」, 『한국근대미술사학』 5호, 한국근대미술사학회, 1997
28. 소재구, 「月臺의 石造造形」, 『勤政殿實測調査報告 上』, 文化財廳, 2000
29. 배만근, 「궁궐 석수조각의 상징성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문화예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30. 이성준, 「경복궁 근정전 월대 난간석주상 연구」, 한국미술사학회, 2011
31. 최준형, 「경복궁, 창덕궁, 점경물 문양에 관한 연구」, 『한국전통조경학회지』, 10권 1호, 2002
32. 김민규, 「 경복궁영건일기와 경복궁의 여러 상징 연구」, 『고궁문화』, 11호, 2018
33. 김일권, 『동양 천문사상 하늘의 역사』, 예문서원, 2012
34. 이순지, 김수길·윤상철 공역, 『천문류초』, 대유학당, 1998
35. 陳遵媯, 『二十八宿의 演變』, 『中國天文學史』, 권2, 1985
36. 왕충, 성기옥 옮김, 『논형』, 동아일보사, 2012
37. 동방삭, 김지선옮김. 『신이경』, 지만지. 2008
38. 장수철, 『산해경』, 도서출판 울재, 2005
39. 홍순민, 『홍순민의 한양읽기 궁궐 (하)』, 놀와, 2017
40. [네이버 지식백과]: 원숭이 [monkey] (두산백과), 검색일: 2019, 8, 10.
41. [중국 검색 포털 사이트]: www.baidu.com: 龍生九子, 《中國吉祥圖說》: 검색일 : 2019. 12. 10.

접수(2019. 09. 18)

수정(1차:2020. 04. 04)

게재확정(2020. 04. 13)